

지역정보화 촉진방안

진성일 · 이주호 · 홍진표 · 최종석
(충남대학교)

■ 차 례 ■

- I. 서 론
- II. 외국의 지역정보화 추진현황
 - 1. 유 럽
 - 2. 일 본
- III. 지역정보화의 촉진 방안
 - 1. 지역정보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2. 지역정보 센터 설립
 - 3. 지역정보 유통망의 구축
 - 4. 지역정보유통의 활성화
 - 5. 정보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 IV. 지방자치시대의 정보화 시책
 - 1. 정보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 2. 지역내의 정보처리 촉진
 - 3. 신규 수요의 개척
 - 4. 정보제공기능의 창출
- V. 결 론

I.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기술경쟁이 치열해져 전화, FAX, 컴퓨터의 이용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등 정보화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효율적 이용이 경제, 사회 및 개인활동에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이 확실하며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 저하와 고도기술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경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하나가 정보화임을 감안 할 때 정보의 효율적 이용의 중요성은 더욱더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복지전산망 등 5대 기간전산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보산업육성과 정보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업은 경영합리화,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가계에서도 정보통신이용을 활

성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위주의 산업화 정책이 국가의 중추관리 기능 및 정보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했듯이 정보의 생산과 분배 및 이용의 측면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별 정보화 불균형 현상은 정보의 중앙편재, 중앙정보의 지방유통체제 미비, 지방의 전문적 정보담당기구 및 센터부재, 지역특성에 따른 정보미흡 등 지방의 정보환경의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지역별 정보화 불균형 현상은 특정기능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따른 중앙 예측심화, 국제전화 부분에 한국데이터통신이 참여하는 등 통신업계의 경쟁체제로의 전환, UR협상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 등에 따른 수익성추구, 물질이나 에너지자원보다 더욱 편재하기 쉬운 정보자원의 속성 등을 감안하면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정보화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망의 기술발달로 거리와 시

간에 대한 장해요인들이 제거되고 있는 이때에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체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중앙통제의 일률적이고 수동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자원과 제반환경에 맞는 정치가 구현되는 지방화시대에 정보화대열에서 소외되어서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므로 지방자치체 실시와 더불어 지역정보화의 동반추진이 필수적이다.

본 고에서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촉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외국의 지역정보화 추진현황

1. 유 럽

EC에서는 정책수행에 따른 이익을 역내 낙후지역의 경제 및 정보통신부문에 투자,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EC 집행위원회에서 84년부터 STAR (Special Telecommunications Ac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계획을 수립하여 EC내 저개발지역에 고도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키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기술수준을 제고, 지역간 격차축소에 의한 유럽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도통신 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수요 및 공급 촉진 사항등이다.

또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등 북유럽지역 4개국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Telecottage운동을 86년부터 시작하여 고립된 벽지사회에 전기통신 및 정보서비스에 액세스를 제공하는등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2. 일 본

일본은 각부처별로 주요 지역정보화 시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우정성은 텔로토피아계획을 수립하여 83년부터 뉴미디어에 의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키 위한 2단계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통산성은 뉴미디어 커뮤니티구상을 수립하여 84년부터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지역간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농림수산부도 그린토피아 구상을 수립하여 86년부터 정보화가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데 대해 농어촌지역도 정보화의 흐름에서 뒤지지 않고 오히려 뉴미디어등을 이용, 생산성을 향상, 유통의 합리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미래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

또한 민활법에 의해 우정성 주관하에 텔리컴리서치파크 및 텔리컴플라자를, 통신성 주관하에 뉴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III. 지역정보화의 촉진 방안

1. 지역정보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가. 지역정보촉진법 제정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지역정보분화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수단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구, 산업 및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중앙집중화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기업의 98%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산업정보화를 위한 물적, 인적자원의 확보, 지역특성정보 수집 및 관리체제 그리고 산업 및 지역정보 교류체제에 있어서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간의 정보이용 격차를 좁히고 지역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각국처럼 지역정보화 촉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지역 정보촉진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도시기능의 정비, 지방문화의 육성등 지역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의 개발 및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이 영세한 지방중소기업의 정보 관련기기 및 시스템도입지원등을 위하여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주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한 지역정보화 기금 등이 마련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추진협의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즉 지방행정 기관, 대학, 연구소, 정보통신업자들을 포함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타 지역과의 협력, 조정기능을 담당하며 기술과학 등 제 측면에서의 연구, 상담, 자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통신요금 제도 개선

합리적 요금정책은 정보이용 활성화의 가장 기본

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화, 전용선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통신시설의 요금제도가 대전지역 같은 경우에 가장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제약 때문에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기본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기반이 매우 약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연구와 단계적인 시외거리단계 축소의 조기조정 등을 통한 전국 단일요금제 촉진등의 제도적 개선이 향후 정부의 주요역점사업이 될 지역정보화 사업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지역정보센터 설립

지역정보센터는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의 전시, 각종 홍보, 연수기능등을 수행하는 지역정보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현재 정보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략적 정보통신의 거점인 지역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정보통신망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능력 함양과 정보문화의 확산을 통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정보센터의 정보통신 거점화는 다극 분산형 국토 형성에 도움을 주어 균형적인 국토 개발을 기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고도 도시 환경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단계적인 전략으로 몇개지역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소규모로 시범 구축운용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 중소도시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범국민적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가능하면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구축하여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기술축적 및 관련사업도 병행하여 전개한다.

또한 지역정보화 협의회를 지역사회 의 공공단체, 상공회의소, 대학, 산업체 지역인사 등이 참여토록 구성하여 지역사회특성 및 경제여건에 맞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운용하도록 한다.

3. 지역정보유통망의 구축

가. 기간통신망의 고도화 및 ISDN도입

지역정보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신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겠으나 이것은 신규투자의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타지역 통신망과 국제망과의 접속에 있어서 제한이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정보유통망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향후 통신망의 진화에 따른 새로운 통신망과 설비를 이용하여 지역정보의 유통차원에서 특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정보통신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기간통신망의 발전에 맞춘 이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음성통신을 위주로 한 전화서비스에서 고품질의 음성통신과 음성서비스의 고도화 및 화상데이터등의 복합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는 기간통신망을 디지털화 하는 것이다.

한편, 전화기를 이용한 음성서비스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보편화되어 있지만, 지능망의 구축을 통하여 이를 더욱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음성 생활정보서비스등의 개발 보급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및 레저 정보 등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앞서 언급한 바와같은 기간통신망의 고도화와 함께 향후 정보통신의 근간이 될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구축계획에 맞추어 지역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DN은 종래의 음성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64Kbps급의 데이터통신과 어느 정도의 화상통신이 가능한 PRI급의 고속통신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통신망이다.

또한 ISDN은 패킷망(PSDN), CSDN, 텔렉스망등 기존망과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통신망(VAN) 등을 접속, 수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정보통신의 기간망으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보유통망의 구축은 ISDN을 근간으로 하여 전국적인 ISDN진화계획에 입각하여 지역정보 유형과 집중 및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중심도시의 전화국을 중심으로 지역정보통신망의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역 VAN의 구축 및 활성화

정보의 활용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주요 방안의 하나로서 부가가치통신망(VAN)의 구축을 들 수 있겠다. VAN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통신망을 고도화시키고 패킷망, ISDN 및 통신처리망을 구축 또는 확대함과 아울러 DB 및 정보처리기술

을 확보하여 신규 VAN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 확산 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사서함, PC통신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종이없이 상거래할 수 있는 전자정보거래(EDI)서비스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산업체의 능률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우편(MHS), PC통신, FAX통신, 민간VAN, 전문기업VAN들의 개발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지역정보유통망의 구축 방향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에 정보의 창출 소유 및 유통의 집중화가 심화되어 있는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도시와 지방간의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환으로 지역 자체의 정보창출기능의 확대와 아울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의 발굴 및 DB화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유통모델의 정립을 통한 지역정보유통망 구축은 중요한 과제이다. 각 도별로 지역정보거점도시를 선정하여 타지역과의 정보의 발신 및 수신기능을 집중화하는 gateway로 삼고 각 도에서는 산업, 관광, 문화, 예술, 국제교역 및 금융유통 등의 특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원을 구분하여 지역권별 중심도시의 전화국을 중심으로 지역정보 DB의 특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상정보, 농업정보, 관광정보, 교통정보등을 이미 구축되어 있는 PSTN을 활용한 음성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데이터통신 서비스에 대하여는 한국통신의 공중패킷망 구축계획과 ISDN구축 및 상용화 일정의 시차가 별로 없으므로 ISDN을 근간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여 지역권별 중심도시에 ISDN교환기를 우선 설치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의 시범방송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의 목동, 상계동 지역의 유선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부응하여 종합 유선방송망(CATV)을 활용한 지역정보유통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CATV는 기존 TV방송망과 달리 많은 채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송업자가 출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도 보다 다양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방영 한다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정보유통의 활성화

가. 지역특성 데이터베이스 개발

현재 각 지역은 그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의 영위와 지역의 생활정보나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등의 교류에 의해 하나의 지역정보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 형성되어있는 지역정보권에서는 전화 등의 전국적인 통신매체에 의한 정보교류가 주가 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의 저장, 가공, 유통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요구된다. 예를들어, 대전지역은 첨단기술정보, 연구정보, 유통정보시스템등을, 부산지역은 종합항만, 무역정보시스템등을, 그리고 제주지역은 관광, 지역문화 정보시스템등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기술이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며 더우기 서비스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국내경제가 위축되어 오히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흔들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축적을 바탕으로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제공자 등을 육성할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 초보단계에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지역정보 DB의 표준화

각 지역정보권의 특성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표준화의 바탕아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는 정보의 호환성을 제고시켜 지역정보화에 따른 중복투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 정보의 상호 공동활용의 극대화를 가능케 한다.

또한 지역정보제공자 측면에서도 정보제공을 용이하게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는 데이터베이스개발과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작업이므로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산하에 관·산·학·연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표준화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정보통신 단말기의 개발보급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통신단말기의 개발보급은 정보문화확산의 핵심요소이다. 프랑스에서는 초기에 미니텔(MINTEL)단말기의 무료보급정책에 힘입어 가정의 정보화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일본 또한 캡틴(CAPTAIN)단말기를 개발보급하여 캡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우리도 소형화 및 가격의 저렴화, 사용에 익숙치 못한 사용자들의 정신적 저항감을 해소하기 위한 단말기 조작의 용이성 제고 등을 목표로 정보통신 단말기를 개발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임대하여 보급하고 홍보효과가 높고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공중 정보통신 단말기를 배치 함으로써 정보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계층의 저변 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5. 정보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가. 정보교육강화

범국민적 정보문화 확산을 통한 정보화 사회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학생들의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습득능력 및 기회제공을 위하여 한국통신에서 컴퓨터를 무상지원하는등 컴퓨터 조기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환경이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컴퓨터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지정하고 담당교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학습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뉴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이 절실하고 중·고등학교도 국민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정하고 시설 및 인력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동안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정보화를 위한 토대가 되도록 한다.

대학의 경우는 컴퓨터 관련 교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전산망의 조기구축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꾀하여야 하며 특히 대학인 뿐만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정보교육이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컴퓨터 통신학습 확대

학습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전화망을 이용하여 PC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단순 암기교육과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교육이 가능하며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외문제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술의 습득을 통한 정보통신의 수요촉진과 지역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학습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컴퓨터 교육에 대한 재정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C/W제작과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 등의 편중에서 벗어나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보통신대학원 설립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대학의 역할이 사회에 대한 지원, 봉사에도 있는 만큼 현재 연구원, 공무원, 교사, 군인, 회사원등 각계각층의 고급인력들의 정보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고 정보통신분야의 기술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소화 할 정보교육기회가 대전, 충남지역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대학에 정보통신대학원을 특수대학원 형태로 설립하여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과정으로 운영 함으로써 정보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사회구축을 위한 역할을 담당케 하는것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의 지방화촉진은 중간관리자, 경영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만큼 그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라. 지역정보문화센터 건립

정보문화의 확산을 통한 정보화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한국통신의 후원하에 정보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보문화센터는 각종기념, 학술행사, 홍보, 강연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정보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보이용의 생활화에 기여함으로써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보화의 지방확산에는 아직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인에 의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지역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직할시 또는 도청소재지에 지역정보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지방자치시대의 정보화 시책

1. 정보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소프트웨어산업을 위시한 정보처리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서울 집중화가 심화되고 서울등 대도시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는 앞으로 대도시 스스로 자급하기가 곤란하여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통한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정보관련 산업의 지방분산화를 촉진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등의 처리를 지방에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중앙관청의 정보처리부문, 부속기관, 판단단체 등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고 기업이 스스로 정보처리부문을 지방에 분산하도록 지도하는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화요금의 전국 단일화등 정보통신요금체제에서 원거리와 근거리요금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체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정보센터의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정책의 소개와 국가시책의 장려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통로역할을 합과 동시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는 기업의 정보처리부문을 적극유지하기 위한 세제, 공장부지 조성에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역내의 정보처리 촉진

지역의 정보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등 대도시에서 집중되어있는 정보처리 및 통신산업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지방업체로의 용역 또는 이전을 장려하는 한편, 지방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시스템개발 등의 업무가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발생한 지역에서 지방업체들이 가능한 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드웨어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사무자동화 대리점 등 정보관련사업을 1개 장소에 집중시키도록 지역정보통신센터를 중심으로 조성하여 지역정보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다. 또한, 지방산업의 정보화촉진시책을 실시하고,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업무는 지방업체에 우선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확립하고 공공업무 프

로젝트에 지방기업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하이테크기업을 유치하고, 정보처리부문 및 기초연구부문을 위시하여 광범위한 인재를 집적시킬 수 있는 인재육성책의 강구와 기술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3. 신규수요의 개척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여 그것을 신규사업화 함으로써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스스로의 능동적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국가는 정보화 진전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는 각종사업법등을 개정하고 산·학·연관의 교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는 행정, 의료, 교육등의 사회분야에 필요한 공공적 성격의 지역 VAN을 구축하고, 정보관련 비즈니스육성의 산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보문화의 달"등 정보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지역정보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정보관련행사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정보제공기능의 창출

지역이 서울 등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과는 반대로, 서울 등 타지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의 발신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중앙정부보유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지역에 관련된 정보는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정보화개발의 중복투자를 회피하기 위해서 각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의 전국적 청사진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산업경제측면과 지역적 문화특성, 예술특성을 가미하여 그 지역에 맞는 정보상품의 특성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지역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뿐만아니라 지역내 정보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일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지역별 정보화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정보화의 촉진은 제도적지원, 지원정보센터의 조기설립, 지역정보유통망의 구축 및 지역정보유통의 활성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적절한 각종 정보화시책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앙기관, 지방자치기관, 지방기업, 지방교육기관등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지역정보화의 추진은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는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보사회 대비능력을 제고시키고, 각종 생활정보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의 고른분배를 위한 정보통신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사회의 핵심적 기반구조를 튼튼히 하여 건전한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자택근무제도가 도입되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한 대도시 교통난 해결에도 간접적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 대영, "대전·충남지역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 중장기 계획연구", 충남대학교, 3, 1991
2. 한국전자통신공사, "21세기 기업혁신을 위한 세미나", 6, 1990
3. 대한전사공학회 "지역정보 확산을 위한 특별강연 (정보문화의 달 특별 강연회 강연집)"6, 1991
4.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사회 자유토론 광장", 6 1991
5.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화사회와 지방화시대 (정보문화의 달 기념 특별 강연회)", 6, 1991
6. 허 영의 3인, "정보사회와 교육(정보문화의 달 학술강연회)", 한국통신학회, 6, 1991
7. 문 건, "제주지역 정보화사회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 중장기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3, 1991
8.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종합정보통신망 상용화 추진전략", 9, 1990
9.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전기통신부문계획안", 10, 1990
10. 김 대영의 1인, "대전·충남지역의 정보화 촉진방안", 충남대학교, 11, 1990

11. 이 상훈의 1인,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정보문화의 달 기념 강연회)", 한국-통신, 6, 1991
12. 상공부, "정보처리산업 육성대책", 6, 1991
13. 상공부, "데이터베이스 산업육성 대책", 3, 1991
14. 김 정흠의 1인, "지방정보통신 강연 시연회", 한국 데이터통신, 7, 1991
15. 임 상용의 1인, "정보화사회와 컴퓨터 활용전망", 한국정보과학회, 6, 1991
16.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산업육성 및 기술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12, 1990
17. NTT, "ANNUAL REPORT", 1989
18. 한국통신충남사업본부, "전기통신통계연보", 1991
19. VNU BUSINESS PUBLICATIONS, "ELECTRONICS", 1984-1990
20. 전기통신 중장기 기술발전 전략 공동연구팀, "전기통신 중장기 기술발전 전략", 체신부, 9, 1991
21.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화사회 자유토론 광장", 6, 1990
22.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화사회와 컴퓨터 활용 전망", 6, 1991
23. 정 선종의 7인, "지역정보 통신망 구성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6, 1989
24. 오 김환의 2인, "21세기로 향한 일본의 정보통신 기술 과제", 3, 1990
25.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종합정보통신망 기술개발동향과 우리의 대응책", 8, 1986
26. 한국전자통신공사 대외협력실, "해외 전기통신 동향", 3, 1990
27. 이 무신의 6인, "대전시 통신망 장기종합 계획", 한국통신기술연구소, 12, 1980
28. 이 영희의 5인, "미래 통신망 시스템 기술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5, 1991
29. 정 선종의 5인, "지역정보 통신망 구성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5, 1988
30. 이 근식의 2인,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3, 1991
31. 정보화사회,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안)", 11, 1990
32. 과학기술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유동 활성화 방안
33. 체신부,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1
34. 이 상덕, "2000년대를 향한 정보통신부문 장기발전구상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연구소, 12, 1986

35. 한국통신, "경쟁력강화를 위한 중기경영계획", 7, 1991

36. 이 봉호, "정보화와 지역경제", 12, 1987

-본 연구는 91년도 통신기술연구과제로서 한국통신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진 성 일

- 1978년 2월 : 서울대 자연과학대 계산통계학과 졸업
- 1980년 2월 : 한국과학원 전산학과 졸업
- 1986년 3월~현재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박사 과정
- 1987년 12월~1989년 6월 : 미국 Northwestern 대학 객원교수
- 1989년 10월~현재 : 충남대학교 전산학과 부교수
- 1990년 1월~현재 : 충남대학교 전자계산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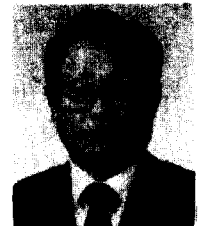
홍 진 표

- 1977년 2월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계산통계학과 졸업
- 1979년 2월 : 한국과학원 전산학과 졸업(석사)
- 1983년 8월 : 한국과학원 전산학과 졸업(박사)
- 1983년 8월~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지능망연구부장 책임연구원
- 1990년~현재 : 충남대학교 전산학과 겸임부교수



이 주 호

- 1978년 2월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1980년 2월 : 한국과학원 산업공학과 졸업
- 1989년 8월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이학박사 (통계학)
- 1989년 11월~1990년 8월 :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 1990년 8월~현재 :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조교수



최 증 석

- 1956년 9월 : 서울대학교 문리대 수학과 졸업
- 1978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졸업(이학석사)
- 1968년 4월~현재 :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 1989년 11월~1991년 10월 : 사단법인 한국통계학회 회장
- 1990년 11월~현재 :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통계부분 자문위원장
- 1991년 3월~현재 :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 학장